

에너지 사용량 적는 **녹색가계부**를 아십니까?

녹색 소비 관점에서 돈의 흐름 기록하고 진단



여기저기에서 친환경 소비 · 녹색 소비 이야기가 화제이다. 녹색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 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녹색가계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부가 돈에 대한 기록이라면, 녹색가계부는 녹색 소비 습관을 들이기 위해 돈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가계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기세 · 수도세 · 가스비 · 쓰레기 등의 사용량을 기입하고 관리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다. 물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녹색가계부일 것이다. 1990년대부터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 차원에서 다양한 녹색가계부가 등장했다. 최근 '녹색생활가계부' 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함께 기입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녹색가계부 쓰기 운동은 보다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수준으로 나아간다. 녹색가계부는 녹색 소비 관점에서 돈의 흐름을 기록 ·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습관적으로 구입했던 상품이나 물건에 대해 '꼭 필요한 것인지, 대안은 없는지' 고민하며 소비 패턴을 조절하거나 친환경 상품 구입 등을 모색하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 · 머니투데이 · 이로운물 · 에듀머니 등이 공동 추진하는 '녹색가계부' 캠페인은 잘 쓰고 돈 버는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 노하우를 확산시키는 실천 운동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녹색가계부의 에너지 절약 효과

녹색가계부를 쓰게 되면 가정과 사회 모두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정에서는 생활비를 줄이고, 쓸 돈은 더욱 잘 쓰게 된다.

행사용으로 싸게 파는 '원 플러스 원' 햄 제품 대신 유기농 달걀이나 콩으로 만든 햄을 구입해 녹색 식습관을 형성하고 가족의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 예외도 있지만 햄은 대표적인 정크 푸드이다.

전기 사용량을 의식해 디지털 TV 구입을 포기하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제품 구입도 줄일 수 있다. 거품이 잘 나지 않아 익숙하지 않지만 친환경 세제를 소량 사용해 설거지하면 물 사용량도 줄어든다.

잡동사니가 되고 말 물건을 여러 개 구입할 돈을 모으면 명품 할인 매장에서 갖고 싶었던 자신만의 물건을 살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던 간식비 · 통신비 · 교육비도 계획된 소비를 통해 대폭 줄일 수 있다. 아껴서 모은 돈은 지속 가능한 소비의 관점에서 노후 계획이나 미래 투자 혹은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에너지 절약 및 온실 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현재 국내 수도물의 3분의 2는 가정에서 쓴다. 한 해 전력 판매량의 14.6%, 도시가스 공급량의 46%를 쓰는 곳도 가정이다.

가정에서 녹색가계부를 쓰면서 에너지 소비를 10% 줄이면 연간 85억 달러(약 8조 5천억원, 정부 한해 예산의 약 1/3)의 수입 대체 및 온실 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한다.



녹색가계부 준비하기

녹색가계부를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싶다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co.kr)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등록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보다 쉽게 기록할 수 있다.

절약 금액에 따라 받은 포인트는 현금·탄소캐쉬백·교통카드·상품권·종량제 쓰레기 봉투·공공 시설 이용바우처·기념품 등 지자체가 정한 범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탄소캐쉬백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에 따라 이마트·프레쥬르·11번가 등 5만여 OK캐쉬백 가맹점·탄소캐쉬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녹색가계부를 손으로 직접 쓰고 싶다면 각종 소비자 환경단체 홈페이지(에너지시민연대의 초록에너지가계부 등)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녹색가계부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2010 부자되기 녹색가계부'를 제작·배포한 한 주

택 회사는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가계부는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것인데, 녹색가계부는 저축과 채테크 정보, 생활 상식과 격언은 물론 온실 가스

줄이기를 위한 정보와 실천 일지까지 구성해 가계부를 쓰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살리는 녹색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다.



녹색가계부 쓰기

녹색가계부를 잘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하다. 혼자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동참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 에너지관리공단·머니투데이 등에서 추진하는 '녹색가계부' 캠페인이 제안하는 녹색가계부 작성 요령을 소개한다.



첫째, 목표세우기. '우리 가족에게 친환경 농산물 먹이기' 같이 단기적 목표부터 '전원주택 마련' 과 같이 장기 목표를 시기별로 세우는 것이 요령이다.

둘째, 가계부 꾸준히 쓰기. 가계부는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콩나물값·기저귀값 등 세세한 항목 대신 '마트 식품 구입' 등 큰 항목으로 간단히 정리한다.

셋째, 신용카드 멀리하기와 대형 마트 덜 가기. 체크카드만 쓰거나 신용카드를 한 장으로 통일해 쓴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사용 정보를 모아 인터넷가계부에 정리하기 편하다. 대형 마트에 가는 횟수는 가급적 줄인다. 가더라도 반드시 구입 목록을 적어서 간다.

넷째, 녹색 가게 둘러보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성화 되는 녹색 가게와 녹색 유통 코너에 둘러 어떤 제품이 있는지 살펴보고 되도록이면 친환경 제품을 구입한다.

다섯째, 가족 동참시키기. 불필요한 지출과 충동 소비를 막으려면 가족 동참은 필수이다. 가족이 사용하지 않는 전원을 끄려면 습관을 바꿔야 하고 외식을 줄이려면 욕구를 절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 글/배순영(한국소비자원 지속가능소비연구팀)